

**MARK SCHEME for the October/November 2009 question paper
for the guidance of teachers**

0521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ximum raw mark 50

This mark scheme is published as an aid to teachers and candidates, to indicate the requirements of the examination. It shows the basis on which Examiners were instructed to award marks. It does not indicate the details of the discussions that took place at an Examiners' meeting before marking began, which would have considered the acceptability of alternative answers.

Mark schemes must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question papers and the report on the examination.

- CIE will not enter into discussions or correspondence in connection with these mark schemes.

CIE is publishing the mark schemes for the October/November 2009 question papers for most IGCSE, GCE Advanced Level and Advanced Subsidiary Level syllabuses and some Ordinary Level syllabuses.

Page 2	Mark Scheme: Teachers' version	Syllabus	Paper
	IGCSE – October/November 2009	0521	01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after each question. In addition, 5 marks will be given for the general quality of the language (see syllabus) in the answers. Total number of marks = 20 + 5 = 25.

- 1 (a) 병에 앞서 환자의 치료비 부담능력을 감정한다 [1]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간호원을 시켜 따돌린다 [1]
젊은 의사를 시켜 예진을 한다 [1]
기록된 진찰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와 경제정도를 판단하여 최종진단을 내린다 [1] [4]
- (b) 환자의 병 상태[1]와 진료비 부담 능력[1]을 동시에 진단하는 것
절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1] [3]
- (c) 항상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이 강한 계층의 사람들 [1]
- (d) 해방이 되어 친일파들을 심판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상태에서 자신이 친일파로서 변을 당할까 걱정되어서 [1] [1]
- (e) 자신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1]
- (f) 일본인들과의 돈독한 관계와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지도 [1] [1]
- (g) 경제적 능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1], 그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는 사상범이었기에 그런 사람을 입원시켜주면 친일파로서 자신의 입지가 곤란해 질것을 두려워하여 [1] [2]
- (h) 개인적으로 춘석에게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었던 원수였다. [1] 사회적으로 이인국 박사는 개인의 호의호식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이기 때문이다. [1] [2]
- (i)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라는 표현[1]은 해방이 되고 난 후 친일파를 심판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만나 이제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만을 기다려야 하는 자신의 상황 [1] [2]

Page 3	Mark Scheme: Teachers' version	Syllabus	Paper
	IGCSE – October/November 2009	0521	01

(j) 해방 직후 자신은 팬찮을 것이라고 애써 위안하지만 자신이 진료를 거부했던 사상범 춘석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1]

자신이 친일파로서 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은커녕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1]

잡혀온 곳에서 춘석을 만나 절망한다 [1]

[3]

2 Up to 15 marks are available for the content of the answer, and up to 10 marks for the quality of writing (5 marks for Style and Organisation and 5 marks for Accuracy of Language).

	공통점	차이점
신분변화	외세에 기대 상승했다가 몰락한다 [1]	이인국은 의사로서 평균이상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지만 [1] 방삼복은 해방 후 재빠른 처세술로 급격 상승했다가 다시 몰락한다 [1]
해방과 독립을 맞는 태도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기뻐하는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 [1]	이인국은 친일파로서 해방 후 자신에게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지만 [1] 방삼복은 해방의 기쁨이 피부로 와닫지 않아 번잡함이 짜증스러울 뿐이다 [1]
부의 축적	시대를 이용한 처세술로서 부를 쌓는다 [1]	이인국은 가난한 환자들을 진료거부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부를 쌓는다. 그가 쌓는 부는 도덕적인 결함은 있지만 불법이 개입되지는 않는다 [1] 방삼복은 미군 장교 S소위와의 친분에 기대 뇌물을 받아 부를 쌓는다 [1]
삶의 태도	권력과 돈을 쫓는다 [1]	이인국은 돈과 권력을 위해 도덕적 가치는 무시하고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한다. [1] 그러나 방삼복은 해방정국의 혼란한 틈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여 산다. [1]
몰락의 계기	일정한 사건을 통해 부귀영화의 위치에서 몰락, 매를 맞는다 [1]	이인국은 친일파로서 잡혀가서 자신이 치료거부를 했던 춘석이에게 매를 맞는다. 즉 그의 몰락에는 사회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가 복합되어 있다[1] 방삼복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S소위에게 실수로 양치물을 뱉어 매를 맞는다. 즉 그의 신분상승 때와 마찬가지로 몰락 역시 개인적이고 단번의 기회에 말미암는다. [1]

[15]